16세기 郎官權의 成長과 朋黨政治

崔 異 敦*

序 言
Ⅰ. 中宗末 明宗代 郎官權의 위축과 '權臣'
1. 중종말기의 郎官과 金安老
2. 명종대의 郎官과 尹元衡, 李樑
Ⅱ. 宣祖代 郎官權의 재정립과 朋黨政治
1. 선조초기의 郎官權의 재정립
2. 선조중기 朋黨政治의 전개
結 言

序 言

조선 16세기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뒤늦은 감이 있으나 근년에 들어서 관심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발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1)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화와 붕당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이 진행되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2)

필자 역시 이에 관심을 가져 정치구조의 관점에서 변화를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성종대이후 言權의 강화와 郎官權의 형성이 정치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 그러한 정치구조의 변화가 정치운영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본 논문에서는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 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정치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정치운영양식은 붕당으로 파악된다. 정치구조의 변화는 중종초기에 일어났으나 붕당은 선조초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만큼 그 사이의 시간적 지체 역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중종말 명종대에 나타나는 '權臣'을 검토함으로써 지체의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郎官權이나 朋黨은 정치제도로 정립된 것이 아니고 정치관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그 실상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례가 많지 않고 지엽적인 것으로

---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강사

(1) 李泰鎭 1986《韓國社會史硏究》知識産業社
宋在璇 1985〈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三英社
韓相權 1983〈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金哲埈博士華甲紀念論叢》知識産業社
高錫珪 1985〈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韓國史論》12 서울大 國史學科
韓相權 1984〈16·17세기 鄕約의 구조와 성격〉《震檀學報》58

(2) 李泰鎭 編 1985《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汎潮社
李秉烋 1984《朝鮮前期 畿湖士林派硏究》一潮閣
李樹健 1979《嶺南士林派의 形成》영남대학교 출판부
金 燉 1984〈中宗代 言官의 성격변화와 士林〉《韓國史論》10 서울大 國史學科
南智大 1985〈朝鮮 成宗代의 臺諫言論〉《韓國史論》12 서울大 國史學科
具德會 1988〈宣祖代 후반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20 서울大 國史學科

(3) 拙稿 1986〈16世紀 郎官權의 形成過程〉《韓國史論》14 서울大 國史學科
1986〈成宗代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震檀學報》61

부터 일반성을 출원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미비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Ⅰ. 中宗末 明宗代 郎官權의 위축과 '權臣'

1. 중종말기의 郎官과 金安老

성종대에 강화된 언권과 중종 중엽까지 그 형태를 정비한 낭관권은 정치구조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어 그에 합당한 운영양식을 갖지 못하고, 중종말기와 명종대를 통하여 왕과 재상이 밀착된 형태인 외척정치라는 변형된 정치운영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외척이 대두할 수 있었던 것은 낭관권의 형성으로 재상들의 활동이 제약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 이전의 재상들은 왕을 견제하여 외척의 등용을 적극 제한하여 외척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어려움 속에서 낭관들은 정치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특히 이 조낭관은 낭권의 핵심을 형성하였고, 낭권을 장악하려는 權臣들과의 충돌도 매우 첨예하였다. 이 충돌 속에서 낭관들의 움직임과 정치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을 본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선조 16년 선조에 의해서 自薦制의 혁파가 명해질 때에 나타나는 다음의 자료는 이 문제 검토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그 때 堂下의 淸望은 모두 吏郞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吏郞의 선발은 극히 중요했고, 반드시 미리 수 인을 천거, 入啓하여서 제수하였으며 王 역시 중시했다. 이에 臺閣과 新進은 매번 公卿과 서로 다투었는 바, 불행히도 權奸이 當國하여 王이 가리운 바 되면 士林의 화가 일어났고, 吏郞이 가장 먼저 당하기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풍습이 이미 성립되어서 名官으로 參銓하지 못하면 수치로 알았다.(4)

이 기록은 두가지 사실을 확인케 해준다. 첫째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吏郞이 堂下官 淸望을 주장하여 확보된 郎官權을 토대로 臺閣과 新進들이 公卿과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둘째 權奸이 當國하면 吏郞을 비롯한 士林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권간이 당국할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낭관권의 원활한 기능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정치운영방식의 모색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은 당연히 몇몇 권신(5)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며 본 절에서는

(4) 《선조수정실록》 권 17, 선조 16년 7월

(5) 권신의 의미는 왕의 신임을 얻어 권한을 휘두르는 외척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사료상에는 權奸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평가가 포함되었어서 권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았다. 권신의 등장은 정치구조의 변화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즉 언권과 낭권이 그 기능을 하면서 외척을 매개로 재상권과 왕이 결탁한 형태를 띠는 것이었고 그 매개한 외척이 권신으로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언권과 낭권은 이들의 결집의 핵인 권신과의 대립이 불가피하였다. '權臣'이라는 용어가 많은 질정을 받아 과학적인 용어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김안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본 절의 관심은 김안로가 어떻게 낭관권을 위협하고 침해하였는가에 초점을 마추어서 설명할 것이다. 먼저 김안로등이 낭관의 밀접한 지지세력인 言官을 어떻게 공략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낭관은 언관의 인사를 주도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왕과 재상으로부터 언관 인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여 언관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언관은 낭관의 활동을 언사로 지지하고 낭관에 대한 재상들의 간여를 배제하여 이 양자는 상호 연합관계에 있었다.[6] 그러나 권신의 등장은 그러한 연합을 위태롭게 하였다. 다음은 중종 32년에 보이는 사례로 김안로당이[7] 어떻게 兩司를 침해했는가를 보여준다. 홍문관에서 이조의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양사를 탄핵하여서 갈게 했다. 그때 政目의 史論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金安老가 부제학 蘇逢을 시켜서 대간을 탄핵하고 朴洪麟 蔡洛 鄭希廉을 대간으로 삼으니 이들은 모두 安老의 처족이었다.[8]

이에 의하면 대간의 탄핵은 김안로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고, 이면에는 박홍린을 대사헌에 채낙을 장령에 정희렴을 지평에 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9] 이것은 당시 정치운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재상의 관여를 허용하는 홍문록의 한계로 홍문관이 권신의 침해에 가장 약했고, 홍문관이 권신에게 장악되자 홍문관이 갖는 대간탄핵권을 이용하여[10] 대간을 공격하여 갈고 자신의 당를 대간에 들여 놓았던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김안로는 이들을 토대로 당시의 이조정랑인 徐固를 탄핵하였다.[11] 이것은 김안로의 대간직 장악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간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홍문관원이나 낭관 등에 대한 탄핵까지 의도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郎官과 三司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權臣과 대립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권신의 강력한 권한앞에 오히려 분열,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중종 26년 이조정랑 李燦과 홍문관 저작 金魯의 파직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다음 史論에 잘 나타난다.

> 李燦이 持平으로서 作疏하여 時事를 논했는데 時人의 뜻과 합하지 않아 쓰이지 못했다. 金魯 역시 홍문관에 있으면서 의논이 합하지 않는 바가 많으니 兩司에서 그를 심술이 邪謬하다고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홍문관에서 箚을 올려 兩司가 燦등을 엄하게 탄핵하지 않았다고 하여 兩司를 갈도록 하였다.(중략) 당시 臺諫과 侍從에는 金安老에게 붙은 이들이 많아서 재삼 논하여 燦등을 杖配에 이르게

(6) 졸고 〈16세기 郎官權의 形成過程〉《韓國史論》 14
(7) 여기서 黨이라는 용어는 朋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사료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8) 《중종실록》 권 85, 중종 32년 6월 무진
(9) 상동
(10) 졸고 〈성종대 弘文館의 言官化 過程〉《震檀學報》 61
(11) 《중종실록》 권 85, 중종 32년 6월 신미

하였다.[12]

이찬과 김노가 탄핵을 받은 이유는 '時人의 뜻과 같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서 지칭하는 시인은 '대간과 시종으로 김안로에 붙은 이들이 많다'는 기록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김안로의 무리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찬과 김노는 김안로의 당을 자극하여 죄를 당한 것이었다. 이찬등이 말한 시론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이찬을 공격한 홍문관의 상소에 나오는 "김안로 復用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이말이 한번 나온즉 족히 국가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밝게 살피는 선비가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13]라는 귀절을 보아 이찬의 소는 김안로의 복용문제를 다룬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이찬 등은 김안로의 복직을 견제하려 했으나 반대파 언관의 공격으로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찬의 후임으로 보이는 李霖이 간원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는 데서도 나타난다.[14]

김안로당은 낭관을 탄핵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서 낭관직에 자파의 인물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洪暹이 파직당하는 사례에 잘 나타난다. 중종 30년 이조좌랑 홍섬이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한다. 그 탄핵 죄목은 '邪譎'하다는 것이었다.[15] 그 구체적인 내막은 술취한 홍섬이 司諫이된 許沆의 집에 가서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 자고로 이와 같이 하여서 보전한 자가 있는가. 나의 아버지 역시 걱정하고 있으며 士林이 모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16]라고 한 대화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김안로 서용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러한 홍섬의 비난을 김안로파가 문제를 삼아 홍섬을 탄핵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귀절을 보면 이 문제의 배후에는 더 근본적인 대립이 깔려 있었다.

> 暹이 말하기를 趙士秀와 朴忠元을 이조좌랑에 천거하고자 하는데 이들이 어떨까요, 공은 필시 蔡洛과 金祺를 추천하고 싶으시겠지요.[17]

이것은 홍섬이 이조좌랑의 천거를 놓고 허항과 한 대화의 일부로 좌의정 金謹思와 우의정 金安老의 啓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낭관들은 조사수와 박충원 등을 천거하고자 하나 허항 등은 김안로의 아들인 김기와[18] 역시 김안로의 처족인 채낙을[19] 천망하

(12) 《중종실록》 권70, 중종 26년 2월 을해
(13) 《중종실록》 권70, 중종 26년 3월 을축
(14) 《중종실록》 권70, 중종 26년 3월 임인
(15) 《중종실록》 권79, 중종 30년 1월 경묘
(16) 《중종실록》 권79, 중종 30년 1월 기축
(17) 《중종실록》 권79, 중종 30년 1월 신미
(18) 《만성대동보》 연안이씨

(19) 《만성대동보》 인천채씨

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상황은 이조낭관에 자파를 넣고자 하는 김안로 일파의 압력이 吏曹先生인 허항을[20] 통해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홍섬은 반대하면서, 김안로당의 동향을 비난하자, 김안로 일파는 그것을 빌미삼아 홍섬을 파직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홍섬은 파직되었으나 김기나 채낙등이 이조낭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낭관들이 천거하는 박충원이 낭관이 되어[21] 그들의 의도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낭관권에까지 자신의 인물을 서용하려는 김안로 일당의 책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책동의 실패는 낭권의 상대적인 강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낭관내에까지 권신세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중종 26년 간원에서는 "이조정랑 閔齊仁이 政事에 狹私用權하여 批目이 내리면 物議가 喧騰하니 파직시키십시오"[22]라고 이조정랑 민제인을 탄핵했다. 여기의 '狹私用權'의 구체적인 의미는 史臣의 "간원이 비록 민제인을 협사용권하다고 탄핵했으나 실은 不附時議한 까닭으로 탄핵한 것이다."[23]라는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의 時議는 앞에서 살핀 이찬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김안노에 붙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제인이 제주목사로 좌천당할 때의 다음 史論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제인은 深毅하고 遠計하였다. 이조정랑이 되었을 때에 許沆이 좌랑으로 있으며, 자못 專擅하고자 하는 것을 제인이 막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한이 생겼는데 安老가 還朝하려하니 안로의 당이 모두 허항을 이조좌랑에서 정언으로 삼았다. (중략) 제인이 마침내 항의 공격을 받았고 이에 항의 무리가 공모하여 제인을 제주목사로 보내었다.[24]

이 내용은 전후관계가 다소 혼란되었는데 실록의 인사관계를 토대로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김안로는 이미 중종 26년 7월에 한성판윤으로 임명되었다.[25] 그러나 이것은 吏曹의 政事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왕명에 의한 것이었다.[26] 그러므로 김안로는 더욱 중요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당시 이조좌랑인 허항을 움직였으나 민제인이 허항의 천단을 막아 성공치 못했다. 이에 대간에서 제인을 狹私用權하다고 탄핵하여 민제인이 갈리자 허항은 김안로를 禮判에 注擬 할 수 있었고, 중종 26년 8월에 김안로가 임명되자[27] 허항은 9월에 정언으로 옮겨간다.[28] 이렇게 볼 때에 '時意'의 뜻은 분명해지며 낭관과 김안로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목되는 것은 낭관도 권신의 침해를 받아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20)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4월 기유 허항이 이조좌랑으로 나타난다.
(21) 《명재총고》 전랑
(22) 《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7월 무진
(23) 《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7월 계유
(24)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4월 기유
(25) 《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7월 기유조 정목
(26) 상동
(27) 《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8월 무진조 정목
(28) 《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9월 신미조 정목

물론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김안로의 아들인 김기 등이 낭관이 못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권신의 압력하에서 낭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김안로당의 집요한 낭관과 삼사에 대한 공략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김안로당은 격퇴당하고 만다. 다음의 자료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 처음에 안로당은 言論의 자리에 分據하여 그 기세를 강하게 하였으나 모두 驟陞하여 고관으로 오르니 堂下官에 있는 자는 희소하게 되어 注擬시에(자파의 인물로) 망을 갖출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時人들은 腰下蹇濕에 비하면서 필히 패할 것을 알았다.[29]

위의 기록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되는데 첫째 '언론의 자리에 분거'라는 점을 보아서 김안로의 무리가 三司는 장악하였으나 郞官까지는 장악하지 못하였음을 암시하여주며, 둘째 김안로의 패퇴에 낭관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낭관권 형성 이후 낭권과 언권을 장악하지 않고는, 적어도 언권의 장악을 통해서 낭권을 견제하지 않고는 권력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김안로의 무리는 결국은 낭관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격퇴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명종대의 郞官과 尹元衡, 李樑

김안로의 격퇴 이후 명종대에 윤원형이 등장하자 명종초부터 윤원형과 낭관들의 대립관계가 보인다. 윤원형 역시 언관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낭관을 공격하였다. 이미 을사사화에 이조정랑 李中悅[30] 이조좌랑 盧守愼이[31] 연루되어 알력의 단초를 보여주었으나 구체화된 것은 명종 원년 林亨秀와 韓澍가 삭탈관작된 것이었다. 그때의 상황을 史論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林亨秀가 이조정랑으로 具壽聃의 집에 가니 진복창이 왔다. 수담이 형수에게 말하기를 복창이 대간이 될 수 없을까 하니 형수가 오래 직시하고 말하기를 이 자는 성균관의 司藝면 가하다 하고 나갔다. 복창이 대노하였고 수담도 부끄러워하였다. 이로써 크게 염로가 생기어 드디어 이에 이르렀다.[32]

여기서 임형수가 이조선생 구수담의[33] 청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진복창과 협의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협의가 원인이 되어서 윤원형 일파에게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여기의 서술은 개인적 원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윤원형이 그와 대립한 낭관을 대간을 통해서 탄핵한 것이 내용의 본질이었다.

---

(29) 《중종실록》 권85, 중종 32년 8월 기유
(30) 《명종실록》 권2, 명조 즉위년 9월 병자
(31) 《명종실록》 권2, 명종 즉위년 9월 임신
(32) 《명종실록》 권4, 명종 1년 8월 기축
(33) 《명세총고》 銓郞

이러한 언권을 통한 낭권의 공격은 명종 4년 兩司에서 吏郎 柳堪과 兵郎 李元祿을 탄핵한 것에도 잘 나타난다.

> 국가가 武定寶鑑을 선집하여 逆黨의 정상을 중외에 널리 알리려 하니 吏郎등은 印見하고자 하였으나 正郎 柳堪은 홀로 응하지 않았고 어찌 볼 책이 없어 이 책을 출간하는가 라고 하였다. 이는 무정보감을 불만하지 못하다고 다른 의견을 내어 인심을 요동시킨 것이니 遠竄을 청합니다. 병조정랑 李元祿은 逆類加罪의 날에 자못 불평한 기색을 하였고 그 숙부 李芑를 지목하여 마당히 赤族의 화가 있으리라고 하였으니 그 심술이 음험합니다. 竄黜하시기 바랍니다.[34]

여기의 무정보감은 乙巳定難記라고도 하는 것으로 乙巳士禍를 전후한 관결문 상서를 모은 것으로 을사사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윤원형등이 만든 것이었다.[35] 또한 여기의 '역류가죄의 날' 역시 을사사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을사사화의 정당성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었고, 나아가서 윤원형등에게 반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탄핵의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탄핵문 뒤에 보이는 細註에 잘 나타난다.

> 원형이 吏判으로 그의 친구에게 이르기를 "柳郎과 李郎은 每注擬에 閣筆 退坐하고 張目 不答하며 출입을 祺迎할 때에도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보니 필시 내가 외척으로 이판을 맡았다고 이러도 심한 것이다." 하니 韓智源이 그말을 듣고 즉시 寶鑑이 즉시 印見되지 않음을 원형, 춘년에게 말하였다.[36]

이 기록에 의하면 유감과 이원록이 피해를 입은 집적적인 이유는 윤원형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를 견제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원형 무리는 대간을 통한 낭관의 탄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낭관직에 자기 당을 침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명종 8년 兩司에서 장령 許曄을 탄핵하는데 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주는 史論의 細註는 다음과 같다.

> 李戡은 許曄이 이조좌랑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천거해주지 않은 것을 원한으로 삼다가 마침 허엽의 宗家가 失火되어 改營을 할 때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자 曄을 탄핵한 것이다.[37]

허엽이 윤원형파인 이감을 천거해주지 않은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허엽이 좌랑이 되는 명종 4년에서[38] 정랑이되는 명종 6년[39] 사이의 일로 추정된다. 여기서 윤원형파는 이감을 낭관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허엽이 반대하자 허엽을 탄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감이 허엽에 의해서 저지된 사실은 계속적으로 윤원형파의 낭관진출이 견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윤원형당의 낭관직 침투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감 역시 명종 7년

(34) 《명종실록》 권9, 명종 4년 2월 계묘
(35) 《연려실기술》 권10, 명종고사본말
(36) 《명종실록》 권9, 명종 4년 2월 정묘
(37)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9월 신유
(38) 《명종실록》 권9, 명종 4년 4월 임인조 정목
(39)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11월 신해조 정목

이조정랑 沈銓의 천거에 의해서 이조낭관이 되기 때문이다.[40] 이감을 잇는 李壽鐵의 경우에도 '媚先進 干陳復昌'이라는 細註가 되어있는 것을[41] 보아서 윤원형의 계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앞의 유감의 기록중에 보이는 '吏郎등은 印見해보고자 하였으나, 유감만 홀로 불긍하였다는 기록 역시 낭관내의 분열을 추측케 해주는 자료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은 김안로 당시에 조짐만이 보이던 낭관내의 분열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 수렴청정하의 윤원형의 권력은 왕과 재상을 겸한 정도의 강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낭권이 분열되고 낭권의 독립적인 영역은 많이 소실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沈銓——李戡——李壽鐵로 연결되는 윤원형계열과 李元祿——柳堪——許曄으로 이어지는 반윤원형계열의 대립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명종 12년에는 이러한 양 계열의 집단적 충돌이 정치표면에 부각된다. 그것은 金弘度 金虬 金繼輝 李龜壽 尹澍 高景虛 尹毅中 등과 윤원형파인 金汝孚 崔瑀 李銘 金鎭 등의 대립이다. 이들 중 김홍도 김규 김계휘 이구수 고경허 윤수 윤의중 등과 김여부 김진 등이 이조의 선임낭관이거나 현임낭관들이어서 낭관내부의 집단적 대립이었다.[42] 이 사건은 양사에서 김규를 탄핵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죄목은 김규가 선후임 이판들인 李浚慶 趙士秀 尹元衡 등과 이조낭관 당시 또는 이조선생으로서 의망을 놓고 대립한 것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었다.[43] 이에 김홍도 등 반윤원형계열이 연루되어 파직을 당하게된다.[44] 이러한 김규의 탄핵죄목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그 내부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주로 기록되어 있다.

> 金汝孚는 金弘度와 거리가 있어 서로 비난하였는데 홍도의 친구인 김규 이수철[45] 김계휘 등이 서로 연결되어서 드디어 각립하는 상황을 이루었다. 홍도등이 일찌기 윤원형을 공격하고자 하여서 疏草를 소매에 숨기어 尹春年에게 보여 주었더니 춘년이 여부에게 말하고 여부가 원형에게 말하였다.[46]

이 기록은 양계열의 대립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김여부와 김홍도의 대립은 김여부가 吏郎으로 있으면서[47] 김홍도를 천거하지 않은 데서부터 일어난 것이었다.[48] 그

(40)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8월 병진
(41)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10월 무자조 정목
(42) 이명 역시 양세력 충돌후 이랑에 임명된다. 당시의 이조낭관의 수를 비교할 때에 反尹元衡派가 많은 것은 당시의 朗官權의 유지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5월 임신
(44) 상동
(45) 이수철은 그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 명조 8년까지도 그는 윤원형의 무리로 파악되나 여기에서는 그 반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사이 입장의 전환을 추측케 한다.
(46)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5월 을해
(47)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6월 기미조 정목 김여부는 김안로의 子였으나 윤원형에게 붙은 것을 史臣은 비난하고 있다.
(48)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2월 병신
初金弘度擢巍科有才名 天曹郎官有欲薦之者 汝孚以無家行 沮之

러나 김홍도도 김규에 의해서 이랑이 되었고,[49] 양자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것이다.[50] 특히 명종 8년 수렴청정 혁파이후 명종이 이양을 이용하여 윤원형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낭관내에서도 반윤원형세력이 강화되었다.[51] 이러한 상황에서 윤원형의 탄핵이 계획되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서 역공격을 당한 것이었다.

김여부등은 김홍도등을 격퇴시킨 후 낭관내 자파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李銘을 낭관으로 삼게된다.[52] 그러나 正四品 掌令을 지낸 李銘이 正六品 佐郎에 임명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正郎으로 삼으려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종용하던 최우와 이에 연루된 김여부 김진 등이 파직을 당하게 된다.[53] 이후 윤원형은 서서히 실각되어 간다. 그것은 낭관권의 집요한 견제로 낭관내의 지지세력을 상실해 갔고, 명종 친정이후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왕의 태도변화로 윤원형이 권신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갔기 때문이었다.

위의 집단적 대립은 다른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시사를 주고 있다. 그것은 위의 양세력은 기본적으로 自薦制를 바탕으로 결집된 것이었고 이러한 자천제를 중심으로 결집된 김홍도와 김여부의 양세력의 대립을 李珥는 초기붕당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 丁巳年間 김여부 김홍도가 서로 헐뜯었는데 홍도는 윤원형에게 분노를 품고 그것을 形言에 나타내었다. 여부가 이것을 원형에게 고하니 원형이 원한을 품고 해하기를 꾀하여 다른 일로 무고하여 죄를 주니 사류가 많이 핍척되었다. 이것은 원형이 조정에 있는 까닭이었다. 지금은 비록 분분하다고도 하나 어찌 그러한 일이 생기겠는가.[54]

위 내용은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이 조정에서 문제되었을 때에 양인을 외직으로 내보낸 후에 선조와 이이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이다. 이이는 당시 金과 沈의 대립을 명종대의 김홍도 김여부의 대립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윤원형이 없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붕당을 자천제를 중심으로 한 집단간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사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낭관들은 지속적으로 反尹元衡 세력을 형성하고 윤원형을 견제하

(49)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10월 신해조 정목

(50)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윤 3월 갑인조 정목, 김소가 김홍도를 천거해주는데 이 양자의 관계는 이전에서부터 긴밀하였다. 김홍도가 명조 8년 정언에 임명되는 정목의 細註에도 交結金虬等互相推薦進退人物〔《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3월 계미조〕라고 기록되어 김홍도의 정언 임명도 당시 吏郎인 김규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1)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5월 임신조와 갑술조에 의해서 당시의 이조낭관이 고경허 이구수 김계휘 등이었음이 확인된다. 물론 이조낭관의 정원이 6명이었으므로(물론 이 인원이 다 차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목에 보이는대로 재구성을 해보면 윤의중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1월 기미조 정목〕 김귀영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윤11월 계미조 정목〕 김진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2월 정유조 정목〕 등이 찾아진다. 이상 6명으로 당시의 이조낭관을 상정하고 볼 때에 윤원형파는 김진 한사람 뿐이다.

(52)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1월 임자

(53)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1월 정묘, 2월 무진

(54)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10월 임인

였으며 나아가서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퇴각에 일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윤원형이 퇴진후에 새로운 權臣으로 李樑이 부각된다. 그 역시 명종의 외척으로 명종의 지지를 힘입어서 권신으로 등장한다. 이양의 부각은 명종의 윤원형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55] 이양과 윤원형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이 양자의 대립은 명종 16년에 이르면 표면화되어서 이양의 승리로 돌아간다.[56] 이양의 부각과 더불어 낭관들의 견제대상도 이양으로 바뀐다.

이양은 명종의 지원으로 진출한 만큼 이양의 초기진출은 낭관과 이양의 대립이기보다는 명종과 낭관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이양의 초기진출에 대한 《燃藜室記述》의 기록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 李樑이 그 勢를 입어 天曹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天曹郎官 洪天民이 이양을 돕고자하는 堂上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천거하니 명종은 천조에서 천거한 이들을 문득 내쳤다. 명종의 의중에는 이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朴好元이 典籍에 오르니 천민이 호원를 천거하였으나 명종은 關西 기근으로 良才가 필요하다고 하여 호원을 용강현령으로 임명하였다.——명종은 이양을 의정부 낭관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舍人 朴大立이 저지하여서 그도 불가능하자 명종은 이양을 應敎에 超拜하였다가 곧 承旨로 발탁하였다.[57]

위의 내용을 실록의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천민은 명종 13년 9월에 이조낭관이 된다.[58] 박호인이 용강현령이되는 것은 13년 9월이었으며[59] 박대립이 검상이 된 것은 13년 11월이었다.[60] 이양은 13년 7월에는 홍문관 수찬이었으나[61] 14년 3월에는 응교[62] 6월에는 동부승지가[63] 된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위의 일은 명종 13년에서 14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는 낭관들에 의해서 윤원형의 세력이 약화된 직후이다. 명종은 이 시기에 윤원형의 남은 세력을 제거하고 郎官權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양을 吏曹와 議政府에 낭관으로 삼으려 했으나 郎官들의 견제로 불가능하였던 것이

(55)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6월 임술조 정목의 세주
李樑王妃之舅也 性愚險浮 不容於公論 而上厭苦尹元衡 欲用樑以分其權

(56) 이 양자간의 충돌은 명종 16년에 李戡 李瓘 등에 대한 현부의 다음과 같은 탄핵에서 본격화된다. 李戡李瓘等 初附於勳戚大臣之門(윤원형) 或深自結納 或事之如奴 及其利盡背歸他相之家(중략) 如此之人不可不懲〔《명종실록》 권27, 명종 16 년 10월 신사〕
이와같은 현부의 탄핵은 이양의 세력이 커가면서 윤원형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양에게로 넘어가자 (위의 他相之家는 李樑을 지칭함) 약세를 면키위해서 윤원형이 대사헌 金弘胤을 시켜서 탄핵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은 실패하고 오히려 金弘胤이 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만다(명종실록 권27, 명종 16년 5월 병진). 이것은 윤원형의 공세가 실패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약세를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史臣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自數年以來 而國權勢盡死於李樑 而元衡之勢反居下焉〔《명종실록》 권27, 명종 16년 5월 병진〕

(57) 《연려실기술》 권11, 명종고사본말

(58)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2월 을사

(59)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9월 갑오

(60)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11월 정묘

(61) 《명종실록》 권24, 명종 13년 7월 계해

(62)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3월 경진

(63)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6월 계해

다. 이양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명종과 낭관의 대립은 다음의 金德鵬의 吏郎薦擧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 이조낭관의 망을 보니 (朴權元 金德鵬 李拭) 혹 불합한 인물(金德鵬을 지칭)이 있다. 내가 經席에 출입하는 자를 어찌 모르리요 누차 천거하여 미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銓曹堂上의 잘못이 아니라 薦擧者의 실수이다.(64)

여기의 천거자는 김덕곤을 자천한 이로 낭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조낭관이 김덕곤을 여러번 자천하자 명종이 이를 비난한 것이다. 명종이 비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細註로 기록되어 있다.

> 덕곤이 성품이 강직하고 휘지 않아 일찌기 正言으로 弼善 金百鈞을 논박하였다. 백균은 樑의 당이어서 (덕곤은) 양에게 거슬리게 되어서 平安評事에 특명되었다. 그는 평안평사로 있으면서 赴京하는 일행을 검사하여 禁物을 빼앗고 가져가는 인원을 구속하였는데, 그 물건은 왕대비가 개인적으로 付送한 것이었다. 上이 더욱 싫어하여 이러한 敎를 내린 것이다.(65)

명종이 김덕곤을 비난한 이면에는 그가 왕대비의 사송물을 금한 것에 대한 보복이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양과 대립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낭관들도 누차 注擬하여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였고 마침내 이러한 명종의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낭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덕곤을 다시 이조낭관에 注擬하여서 결국 推考 당하는 데까지 이른다.(66) 이 사례는 낭관이 자기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는 왕과 대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양의 지위가 김안노나 윤원형과는 다소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양의 경우 명종의 전권을 받아서 스스로 낭관들과 대립하는 양상이 아니라 오히려 명종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양을 지원해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명종이 잡고 있어서 이양을 권신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67) 그런 까닭에 이양과 낭관이 적극 대립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립의 국면은 유지되고 있었고 명종 18년에는 크게 표면화된다. 헌부에서 '結爲朋比' '高談之害人國家' 등의 죄목으로 朴素立 奇大升 등을 탄핵한 것에서 사건은 시작된다.(68) 이것은 吏曹先生들과 낭관들이 이양의 일파와 충돌한 것이었다. 이 충돌의 발단은 朴素立 尹斗壽 李後白 등이 이양의 아들 李廷賓을 吏郎으로 천거하기를 거절한 데 있었다.(69) 이양은 이조선생인 朴謹元 奇大恒 丁應斗 등을 동원하고, 이조낭관 중에서 박소립

(64)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 12월 병오
(65) 상동
(66) 《명종실록》 권27, 명종 16년 4월 갑인
(67) 이 시기의 권신들은 세도정치기의 권신들과는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세도정치기에 권신들은 낭권을 비롯한 비판세력이 없었으며, 비변사의 기능확대로 비변사를 통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시기의 권신들은 郎官과 三司의 견제 속에서 왕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였다.
(68)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계해
(69) 상동조의 세주

과 의견을 달리하는 尹仁涵의 도움을 받아 이정빈을 낭관에 임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정빈을 통해서 李彦怡 柳永吉 李成憲 등을 낭관에 천거하여 낭관권을 침식하려 하였다.[70]

이 변화는 이양이 이판이 되고 이정빈이 相避로 정언으로 나가면서 본격화되었다.[71] 이양은 '宰批 入啓할 때에 慶尙道觀察使 吳祥을 빠뜨리고 不錄한 것'을 문제삼아 朴素立과 尹斗壽를 탄핵하여 이조에서 내어보내고[72] 연이어 奇大升 尹斗壽 李文馨 許曄 尹根壽 등을 위에서 언급한 '結爲朋比' '高談之害人國家'의 죄목으로 삭탈관직하거나 파직케 하였다. 이양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이조선생인 姜士尙 朴應南 洪仁慶 李後白 등을 외임으로 좌천시킬 계획을 세운다.[73] 이러한 이양의 획책은 낭관권을 그 근저에서부터 파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역시 이조의 선생이며 이양의 생질로 명종과 인척관계에 있는 沈義謙의 도움하에[74] 낭권의 반발로 이양이 탄핵, 실각되어 실패하고 박소립등은 복직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종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종은 자신의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 이양을 등장시킨 것이었으므로 낭관권을 근저에서부터 타격을 주어 이양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한편 낭관들도 윤원형과 대립할 때보다는 강한 결속력으로 반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으로 정치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낭관들의 움직임을 살펴 보았다.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자천제를 그 집결핵으로 하여 낭관들은 지속적으로 反權臣的인 태도를 유지하였고 나아가 비정상적인 정국의 회복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선조 16년 兩司의 啓에 나타나는 '銓曹之薦 尹元衡李樑之所不敢革'[76]라는 지적이나 도승지 朴謹元의 啓에 나타난 '淸議多出於郎官'[77] 라는 지적은 郎官權의 역사적 기능을 잘 지적해 주고있다.

Ⅱ. 宣祖代 郎官權의 재정립과 朋黨政治

1. 선조초기의 郎官權의 재정립

李樑의 퇴진으로 낭관권은 서서히 제 위치를 찾기 시작했고 선조대에 들어서는 위축되었던 낭관권이 재정립된다. 적어도 선조 8년까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 과

(70)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7월 무자
(71)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7월 임진조 정목
(72) 간원의 탄핵으로 시작하였으나 史論은 다음과 같이 이양의 획책이었음을 보여준다.
　　李樑之黨相與陰擠 朴素立尹斗壽之事 始萌于此 此所謂托於正 以售其不正者也
(73)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을축
(74) 《권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을축조의 세주 沈義謙大爲求解 因內達于中殿 又令奇大恒上答論之 上意函回 朝野莫不快之 士林之得免大禍
(75)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9월 기축
(76)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신축
(77)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정에서 재상들과의 상호 견제적인 사례들을 다수 노출하고 있다. 이시기 朋黨이라는 지칭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붕당은 아니었고 재상과 낭관들의 갈등에 대한 후기적 수식에 불과하였다.

선조 2년부터 재상들과 낭관들의 갈등이 노정된다. 李滉을 종주로 하는 奇大升등 신진들과 李浚慶 金鎧 등 선배들간의 알력이었다. 이것은 선조 2년 6월 경연중 대사헌 金鎧가 올린 啓에서 표출되었다. 김개는 "己卯年趙光祖則 雖純善之人 而但年少輩多有誤事 光祖反爲憂慮"라고 전제하면서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臺諫論大臣之失則可也 如私議於家則人心不無憂亂 此不可爲之事也"[78]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대승 이후백 등이 영상 이준경을 비난한 것에 대한 공격이었다.[79] 이에 기대승은 "東漢의 말기의 公論은 草野에 있었으나 이것을 진멸하자 동한이 망했고, 唐末의 朱全忠이 淸流를 馬驛에서 죽이고 黃河에 빠뜨리자 당이 망했다"고 전제하면서 "사람들에게 私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聖明의 下에서는 부당한 일이다"[80]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발언을 한 김개는 소인이며 그 죄는 玆邪之惡에 속한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己卯의 일은 정해진 것인데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金鎧가 李鐸 朴淳 奇大升 尹斗壽 尹根壽 鄭澈 등을 무고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여러 차례 三司의 탄핵을 받게 되고 삭탈관작되었다.[81]

이러한 김개와 기대승의 충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음의 기록은 김개 배후의 인물들과 충돌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여준다.

> 李鐸이 吏判이 되어 公道를 넓히는 데 힘써 初入仕者를 士舍生과 달리 門蔭試才하여 補官하면 현자가 어찌 나오겠는가라고 생각하고 郎僚들에게 아는 名士를 선발하게하고 낭료의 薦擧를 받으면 試才를 하지않고 擬望하였더니 이에 士路가 맑아졌다. 그러나 舊規를 가볍게 회손하고 비난한다는 이들이 있었으나 李鐸과 具鳳齡은 굽히지 않았다. 疊이 판서가되자 李鐸이 한 바를 모두 뒤집으니 낭관과 서로 어그러져, 士類를 꺼려하여 從兄 右相 暹, 判書 宋純과 합의하여 純을 대사헌으로 삼아 士類를 공격하였으나 純이 다른 일로 바뀌자 김개를 서용하였다. 김개마저 죄를 얻자 疊은 불안하여 병을 칭하고 사직하고, 暹도 병을 칭하여 사직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82]

이것은 이판 홍담의 사직후에 보이는 史論으로, 이에 의하면 李鐸이 이판이 되어[83] 낭관의 뜻을 받아들여 郎薦制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홍진 송순 김개 등이 이들을 내치고 홍담을 이판으로 삼아 기대승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립은 이준경을 위시해서 홍섬 홍담 송순 김개 등의 재상등과 기대승을 중심하는 낭관들과의 대립이었다.

---

(78)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6월 신사
(79)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6월
(80) 《선조실록》 권 3, 선조 2년 6월 신사
(81)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6월
(82) 상동
(83) 이때은 두번 이판이 된다. 선조 원년과 선조 4년이다. 위의 내용은 원년의 일로 생각된다. [《선조실록》 권2, 선조 원년 5월 갑진 정목과 《선조수정실록》 권5, 선조 3년 12월 정목]

이 대립의 구체적 사유가 된 郎薦制는 낭관이 천거한 인물의 試才를 면해주는 것이었다. 당시까지 낭관은 淸職에 주로 관여하여 武職이나 門蔭職에는 堂上의 권한이 컸고 이 직소는 재상들의 청탁에 의해서 좌우되었다.[84] 이에 대해서 士林들은 薦擧制 運動을 벌여 일정한 성과를 얻어왔으나[85] 중종말 명종대에 권신들의 등장으로 위축되어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낭권이 정상화되면서 낭관권하에 이 문제를 귀속시켜서 청탁에 의해서 처리되는 불합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낭권의 확대였고 따라서 재상들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처였다. 홍담이 이판이 되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郎薦制를 폐지하자,[86]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양자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낭관권의 재정립과정에 있었고, 따라서 郎薦制는 계속 실시된다.[87]

이 양자의 대립을 朋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보인다. 당시의 史臣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이 때에 왕이 新政으로 정사에 힘을 다하였는데 新進之士는 모두 李滉을 종주로 삼고 그 門에서 講學하며 스스로 일대를 이루어 挽回 世道와 激濁揚淸을 숭상하여 논하니 時人이 小己卯라고 지목하였다. 윤원형 이양당류는 모두 폐하였고 (중략) 구신의 명망자는 世變에 지조를 잃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浮沈取容하여 부귀안일함이 오래여서, 新進之人에게 前輩가 流俗에 빠졌다고 경시당하였다. 이에 舊臣들도 불평이 가득하여 역시 일대를 이루었다 (중략) 이에 形色과 界限이 자못 구별되어서 여염에서는 老少黨이라고 지목하였다.[88]

신진들과 전배사이의 갈등을 노소당으로 지목하였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도 신진들을 小己卯라고 지칭했듯이 이들은 己卯名人들이 형성하였던 낭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혁을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다. 구신들은 스스로는 명망자로 자처했지만 부귀안일해져 개혁에 소극적이어서 여러 면에서 이들과 충돌을 일으켰고 老少黨이라는 이름까지 얻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립은 뒤에서 언급할 것처럼 붕당의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재상과 낭권의 대립이 기본 구도였다.

이와같은 낭권의 재정립으로 나타나는 재상과의 대립은 선조 4년에도 보인다. 백인걸이 사직하자 그 사직을 설명하는 史論에 다음과 같이 당시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 仁傑이 李浚慶의 위인됨에 감복하여 매양 士類가 大臣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한하여 그것을 말로 나타내었고, 奇大升 沈義謙을 마땅지 않게 여겨 그들의 잘못을 항시 드러내었다.[89]

---

(84) 졸고 〈16세기 郎官權의 形成過程〉《한국사론》 14
(85) 졸고 〈16세기 士林派의 薦擧制 강화운동〉《한국학보》 54
(86) 이이의 〈경연일기〉에 의하면 홍담이 폐지하려는 것을 郎官 정철이 막아서 못하게 하자 담이 더욱 士類를 꺼려했다고 되어있다.
(87) 선조 4년 진사 洪可臣이 郎薦制에 의해서 참봉이되며 〔《선조수정실록》 권5, 선조 4년 1월〕, 선조 8년에도 낭천제를 폐지하라는 선조의 명이 있었으나 史論에 '復施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계속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조수정실록》 권9, 선조 8년 7월〕
(88)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4월
(89) 《선조수정실록》 권5, 선조 4년 7월

이 기록에 의하면 백인걸이 이준경을 지지하여 그를 비난하는 낭관들을 비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白仁傑과 盧守愼 金鸞祥 閔起文 등 乙巳士禍에 피해를 입었다가 다시 등장한 인물들의 입장이었다. 이들은 乙巳의 遺臣으로 자존하여 후배를 가볍게 보았고 또한 그들의 '過激'을 싫어하여 이준경을 지지하였던 것이다.(90) 여기의 過激은 李浚慶 卒記에 보이는 '新進論議 果銳'(91)의 果銳와 같은 의미로 新進들이 己卯名人을 이상으로 삼아, 개혁을 추구하였고, 이것을 대신들은 과격한 것으로 파악하여서 이 양자의 대립이 격렬하였던 것이다.

낭관들과 재상들의 대립은 이준경의 破朋黨 상소로 극에 달한다. 이준경은 선조 5년 그가 죽기 바로 전에 4조의 상소를 올리는데 그 마지막이 '破朋黨之私'(92)였다. 이준경의 의도는 당시의 史論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당시에 老少黨이라는 말이 계속되자 준경은 그것을 걱정하고 大升등을 싫어하여 선배에게 붙지않은 자들을 이 疏로서 억누르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舊臣을 扶植하는 데에 있었다.(93)

이것에 의하면 이준경의 상소 의도는 三司와 郎權으로 결속된 신진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준경의 상소에 대한 공격이 삼사는 물론 낭권을 지지하는 예문관 독서당에서까지 나왔다.(94) 당시 應敎 李珥는 다음과 같이 공격하였다.

> 붕당의 설이 언제는 없었겠는가. 오직 군자와 소인을 살피는 것이 있을 뿐이다. 진실로 군자는 千百이 무리가 되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중략) 준경이 지적하는바 붕당이라는 자는 모두 일시의 淸望이며 公論을 주장하는 자다(중략) 己卯이후 奸臣이 차례로 權柄을 잡아 (중략) 唯唯諾諾者만이 首領을 보전한 고로 당시의 높은 관직에 있던 자는 행실이 비루한 자였고 중요한 관직에 있던 자는 재주가 없는 자였다. 오늘날의 舊臣은 모두 모난 것을 잘라 원을 만들고 술찌거기를 먹고 마신 나머지에서 나와 강직하여 굴복하지 않는 절의지사들 어찌 구신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공론이 불허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이다.(95)

이에 의하면 이이는 자신들을 淸望이 있고, 公論을 주장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구신들은 이미 권신의 집권기에 의절을 굽힌 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이이의 견해는 기대승을 중심으로 하는 낭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들의 발언이나 태도는 '過激'하거나 '果銳'한 것으로 구신들에게 비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선조초기의 老少黨으로 지칭된 낭관과 재상의 대립은 낭관의 승리로 끝난다. 이것은 낭권의 구성원인 기대승등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승진해 갔으나 이준경등은

(90) 《선조수정실록》 권5, 선조 4년 7월
(91) 《선조수정실록》 권6, 선조 5년 7월
(92)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7월 경인
(93) 《선조수정실록》 권6, 선조 6년 7월
(94) 상동
(95) 상동

사임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로 郞薦制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소당이라는 명목으로 붕당의 양상을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붕당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끝난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준경등의 결집기반이 지위와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낭관들의 기반인 自薦制에 비하여 취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를 통한 지속적인 대립을 이루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 낭관들의 지위가 상승해감에 따라 이들은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2. 선조중기 朋黨政治의 전개

宣朝초기에 걸쳐서 재정립된 낭관권으로 정치의 운영 형태에 변화가 초래된다. 낭관권의 정립은 自薦制라는 강력한 결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낭관의 선후배는 두터운 유대를 갖는다는 것은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낭관권이 재정립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선배집단은 낭관과는 상호견제 관계에 있는 재상의 집단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양자간의 분리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성격은 중종대 낭관권이 형성되면서 계속되는 것이었지만 권신의 등장으로 낭관들의 순조로운 재상진출이 어려워 그 표출이 지연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선조초기의 낭관권이 재정립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구조적인 분열이 임박하였고 그 계기만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과 더불어 붕당관에 대한 인식도 진전되어 붕당을 가능케 한다. 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연산군대까지만 해도 형성되지 못하였다.(96) 그러므로 戊午士禍는 붕당이 죄목으로 등장했다.(97) 중종대에는 붕당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朋과 黨으로 나누어서 구별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98) 그것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실제에는 붕당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왕의 입장에서는 아직 붕당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99) 이러한 이러한 인식의 미비는 당시 정치구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고, 결국 기묘사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100)

---

(96) 夫朋黨非盛世所有——此皆衰世之事〔《연산군일기》 1권, 연산군 1년 12월 계축〕

(97) 李宗準 崔溥 李鐸 康伯珠——朋黨決杖八十遠方付處——臺諫等 亦以朋黨論之〔《연산군일기》 권30, 연산군 4년 7월 경신〕

(98) 이 시기에는 구양수의 붕당론을 이해하고 있었다.
所言朋者小人陷害君者一網打盡之術也 歐陽脩朋黨論盡之矣〔《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을해〕
구양수 붕당론에서는 '君者有朋而無黨' '小人有黨而無朋'이라는 인식하에서 「朋黨」이라는 용어대신 「朋」「黨」으로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였다.

(99) 당시 己卯名人들은 구양수붕당관에 입각해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다음에 나타나듯이 붕당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왕이 붕당을 싫어한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군자의 붕이라면 괜찮다는 붕당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속에서 조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붕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有此朋黨之說 則君子自不得立于朝矣〔《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 5월 을해〕
士有志氣相合而相從者 世以朋黨論之 使人君聞之厭苦 欲以陷害〔《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윤12월 임오〕

(100) 기묘사화에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붕」과 「당」을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흔적도 보이고 己卯名人들을 처벌하는 죄목으로 붕당이라는 명목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죄

그러나 선조대에 이르면 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臣僚와 王에게 분명하게 형성된다. 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화되게 된 데에는 붕당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왕까지도 붕당에 끌어 넣어야 한다[101]고 주장하는 朱子의 붕당관에 대한 인식의 수용이 크게 작용하였다.[102]

주자 붕당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선조 5년 이준경의 破朋黨 상소를 비난하는 李珥의 상소에서 보인다.

> 자고로 붕당을 논하는자는 歐陽脩의 論보다 辨한 것이 없고 朱子의 答留正之書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구해보면 군자 소인의 정상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103]

이 기록에 의하면 이이는 구양수의 붕당관과 함께 주자의 붕당관을 언급하고 있어 붕당관에 대한 이해가 진일보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붕당관의 진전은 士禍를 거치면서 붕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가 가중되었고, 주자의 答留正之書가 실린 朱子大全이 중종 말기에 들어와서 명종대에는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이론적으로 심화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경등에 의해서 '朋黨'이라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직면하자 이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붕당을 인정하는 朱子의 견해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이는 "朋黨의 說이 언제는 없었겠는가. 오직 군자와 소인을 살피는 것이 있을 뿐이다."[104]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식에서 동서의 保合을 주장하면서[105] 상당한 기간 동안 중재적인 모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붕당에 대한 인식의 심화는 이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붕당의 인식에 대한 진전은 신료들은 물론 왕에게도 형성되어 있었다. 선조 역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조 16년 吏曹佐郎 金弘敏이 李珥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이 상소에 대해서 선조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 李珥黨이라고까지 부르나 그것이 어찌 나를 동하게 하겠는가 모름지기 군자라면 그 당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걱정할 것은 그 당이 작을까하는 것이다. 나도 朱熹의 설을 법받아 珥渾의 당에 들어가기를 원한다.[106]

목은 붕당이었다.

今此聖朝 文臣作朋類 以其好惡進退人物〔《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무신〕

下傳旨于義禁府曰 光祖金淨金湜金絿等 相朋比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聲勢相倚 盤據權要 引誘後進〔《중종실록》 권37, 중종 14년 11월 을사〕

(101) 《朱子大全》 권28, 〈與留丞相書〉

(102) 붕당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태진교수가 이미 〈16세기 사람의 역사적 성격〉《대동문화연구》 13에서 "性理學에서는 漢唐儒學에서 용납하지 않던 人臣의 붕당을 인정하는 변화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103) 《선조수정실록》 권 6, 선조 5년 7월

(104) 상동

(105) 《선조실록》 권13, 선조 12년 5월 병자 그는 東西를 타파하여 士流를 保合할 것을 주장하였다.

(106)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9월 신사

선조는 김홍민이 이이를 서인으로 몰아 黨으로 지목하고 비난하자 朱子 붕당론에 나오는 "引其君以爲黨而不憚也"라는 주자의 글을 상기하고 자신이 李珥의 당에 들겠다는 태도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조도 충분히 붕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붕당을 죄악시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서로의 집단적 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어 상호대결이 士禍와 같은 극단적인 상태로 흐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선조 8년 이후 붕당은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것은 선조 8년 이전의 낭관으로 이준경등 재상들과 대립하던 집단이 서서히 재상의 집단으로 이전해가고 있었고 새로운 낭관집단이 金孝元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양자는 서서히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이 김효원과 심의겸의 개인적인 대립이었다. 이 대립의 발단은 김효원이 총망있는 재사였으나 심의겸이 銓郞에 있으면서 김효원의 친구가 윤원형가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의 淸職서용을 막은 데 있었다. 그러나 김효원이 윤원형에게 아부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져서 수년 뒤에 김효원은 銓郞에 오르게 되었고, 효원이 심의겸을 "기질이 조잡하고 마음이 어리석어서 吏曹에 쓰는 것이 불가하다"(107) 라고 비난하면서 그 갈등은 구체화되었다. 또한 金孝元이 沈義謙의 아우 沈忠謙을 전랑에 천거해주지 않아 이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史臣은 "이로 말미암아 士林의 前後輩가 서로 불화하게 되어 分黨의 조짐이 있었다."(108)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沈과 金의 이러한 대립은 사소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인사마찰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앞의 서술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던 것이므로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짐이 붕당화되기까지에는 구조적인 상황이 주목되어야 한다. 즉 선조 8년을 즈음한 낭권의 구조적 분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개인적인 긴장관계를 통해서 구조적인 대립의 일단을 표출시켜가고 있었을 뿐 아직 붕당이라 할 수는 없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붕당의 조짐'이었다. 아직 선배낭관이 재상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고 진입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양자는 수시로 협조체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의 선조 8년의 자료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 鄭宗榮이 士類를 싫어하여 專擅하였는데 郞僚 李潑은 그아들 諷으로 인해서 後進과 친하였다.(그리하여 이들을 쓰고자 하였지만)종영이 따르지 않자 당시의 대사헌인 金繼輝가(종영을) 탄핵했다.(109)

선조 8년 이판 정종영이 사헌부의 탄핵으로 물러나는 내막을 적은 史論이다. 이것에 의하면 이판인 정종영이 낭관인 이발과 인사문제로 대립되었고, 이에 김계휘가 정종영을 탄

(107) 《선조수정실록》 권9, 선조 8년 7월
(108) 상동
(109) 《선조수정실록》 권9, 선조 8년 6월

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나중에는 金과 沈의 당으로 나뉠 두 사람이 아직 상호협조하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양 黨의 알력관계도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었다. 선조 8년 김계휘가 평안도 관찰사로 좌천되는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許曄의 아들 鈞이 吏曹佐郎이었으나 경박하고 식려가 없었다. 봉은 繼輝가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노해서 參判 朴謹元과 함께하여 계휘를 외직으로 좌천시키니 物論이 비난했다.(110)

이것은 金繼輝가 허엽을 "私情만 생각하고 제 소견만 편벽되이 주장한다."(111)라고 비난한 것 때문에 허봉이 김계휘를 공격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례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한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金黨인 허봉이 沈黨인 김계휘를 공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金黨의 형편은 미약한 것이었고, 諫院의 "이조에서 私를 따라 失政하였으니 참판 이하 관원을 갈아주시오"라는 탄핵에 따라 박근원, 허봉과 더불어 역시 金黨인 좌랑 李誠中까지 바뀌게 된다. 양파의 대립이 사감과 연결되면서 서서히 표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당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서 당시의 양파 세력 정도를 짐작케 해준다.

이렇게 양자의 충돌이 구체화되자 이 문제가 조정에서 거론되게 되었고 李珥의 중재에 따라 金孝元과 沈義謙 양자를 외직으로 내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양자의 충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재상과 낭관의 구조적인 대립이었으므로 개인차원에서의 해결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112) 이러한 외임의 임명에 대해서 金黨쪽에서는 자기 쪽에 불리하게 조처했다고 생각했고 沈黨쪽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金黨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획책하여서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아직 중재적인 입장을 견지 하였던 이이는 김당의 李潑을 吏郎으로 삼아 김당을 안심시키면서 상태를 호전시키려고 애썼지만(113) 심당의 공세로 李潑이 곧 물러나고 尹斗壽의 姪인 尹睍이 이조낭관으로 임명되어(114)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공세는 金黨과 沈黨의 대립이 구체화되면서 재상권을 토대로 하는 심당이 낭관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는 획책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열세에 있기는 했지만 김당의 토대가 낭권에 있는 만큼 쉽게 장악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낭관들은 이에 대하여 반발하여서 尹睍의 낭관 임명에 따른 낭관권내의 갈등이 다음에서 지적되듯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110) 《선조수정실록》 권9, 선조 8년 8월
(111) 《율곡집》 〈경연일기〉
(112) 이이는 이러한 대립을 낭관권을 매개로 한 대립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구조적인 파악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미봉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에 가면 이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낭관권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데까지 나아간다,
(113) 《선조수정실록》 권10, 선조 9년 2월
(114) 상동
(115)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10월

당시 睍과 金成一이 銓郞으로 있으면서 의견이 모순되어 서로 사이가 벌어졌다.(115)

이것은 선조 11년 윤두수 등이 파직될 때의 史論으로 윤현과 김성일의 알력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개인적 알력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전랑내부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즉 尹睍이 낭관권의 장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낭관에 임명되었지만 낭관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낭관내부에서의 압력과 더불어 대간들의 윤현에 대한 압력도 상당했다. "銓官이 편당하여 異論者는 補外하니 모두 바꾸어 주십시오(116)"라는 선조 9년의 헌납 유성룡의 탄핵은 그 대표적 예로 윤개의 편파적인 인사에 대한 탄핵이었는데, 낭관의 내부의 갈등을 三司가 郞權의 입장에서 문제로 제기하여 지원해 준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현은 자신을 지지할 인물들을 낭관과 삼사에 임명하려고 힘쓴다. 趙瑗(117) 李純仁(118) 洪可臣 등이 그들이다. 윤현은 이들을 서용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 하였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다. 다음의 이순인이 낭관에 임명되는 史論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純仁이 일찌기 金孝元을 貪權한 신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睍이 끌어서 銓郞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랑이 되어서는 公論이 현과 함께하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김효원에게 붙었다.(119)

위의 자료에 의하면 윤현의 움직임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추측을 하게한다. 즉 당시의 낭관내의 분위기는 윤현의 움직임을 제약했으며 윤현의 지지자마저도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三司내에서도 상황은 같았는데 홍가신이 그러한 예이다. 11년에 지평 홍가신이 尹睍의 파인 이조좌랑인 趙瑗을 탄핵하는데 그때의 史論도 "可臣이 어려서부터 원과는 친우였지만 공론을 도왔다."(120)라도 기록하고 있어 그의 처음 입장은 조원에게 우호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현의 지위는 점차 위축되어 갔고 결국 "前輩중 年少士類는 불과 子弟 수삼인이다."(121)라는 기록으로 당시의 상황은 축약된다. 낭권과 재상권의 대립에 재상들은 자제를 동원해서 낭권을 장악해보려고 했지만 李純仁이나 洪可臣의 전향이 보여주듯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

(116) 《선조수정실록》 권10, 선조 9년 3월조에 의하면 당시의 낭관은 尹睍과 趙瑗이었다.
(117) 《선조실록》 권10, 선조 9년 1월 정미조 政目의 사론에는 조원이 이랑에 임명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睍……欲以趙瑗爲銓郞 瑗有文名而 無器識 士望不歸而 只以瑗曾爲正言 論遞兩司以殺孝元之勢 故睍特引之 珥又止之曰 伯王(瑗字也) 非可用之才也 今不論人品而只用嫉仁伯(孝元字也)者 君輩必敗矣 睍不從意 用瑗爲銓郞
(118) 《선조수정실록》 권10, 선조 9년 11월조 政目에 吏郞이 된다.
(119) 상동
(120)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121)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10월
(122) 상동

이러한 탄핵과 압력에도 윤현등은 지위를 얼마간은 유지하였다. 그러나 탄핵이 계속되었고 낭관과 삼사내의 윤현의 당은 차차 약화되면서 결국 선조 11년 윤현도 탄핵을 받아 갈리게 되자[122] 金黨의 승리로 끝난다. 선조 11년 경에 이르면 이제 金黨도 완전히 낭권을 장악하고 이러한 성숙한 기반을 토대로 이이 이산보 등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던 이들을[123] 沈黨으로 몰아 붙였고 이로 인해서 완전히 東西로 나뉘어 붕당은 본격화될 준비가 갖추어 진다.

그러나 이이등 서인의 성격은 이전 윤원형등 권신이나 선조초기의 이준경등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것이었다. 백인걸의 상소에 '所謂西者多指先輩舊臣'이라는 귀절이 보이는데 여기의 구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細註를 붙여 설명하고 있다.

> 소위 舊臣은 (선조) 즉위초의 新進들이다. 나이가 비록 많으나 新政에 選用되어 激揚建立을 힘썼다. 尹元衡과 李樑時의 浮沈庸碌한 舊臣과는 다르다.[124]

이러한 기록은 당시 서인들의 기능적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낭관권을 토대로 결속되어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후배낭관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능성을 살리면서 도태를 면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들은 그냥 도태되기에는 강력한 결집력과 유대를 갖고 있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서인에 의해서 추구되었다.

이후 서인들의 모색은 결국 붕당정치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선조 15년이후의 일이었고 이이가 서인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기본 태도는 낭관권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것이었다. 서인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동인을 공격하여 격퇴시키는 방법이었고 그 다른 하나는 동인과 협상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중재자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오히려 서인으로 몰린 이이는 동인을 공격하는 방법을 취한다. 즉 낭관권의 결집핵인 自薦制와 낭관권의 이념적 토대인 公論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먼저 동인 결속의 토대인 낭관권을, 그리고 낭권의 핵인 자천제를 문제로 제기한다. 낭관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선조 15년 吏判 李珥의 啓에 나타난다.

> 祖宗朝에는 銓衡의 장을 중시하여 필히 極選하여 (중략) 일시의 淸論을 주장하였고 郎官은 단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보좌하였을 뿐이었다. 오늘날은 館閣의 淸選이 모두 낭료에게 위임되니 (장관은) 단지 微末의 직을 注擬 하는데에 그치는 것이 오래되었다 (중략) 고로 淸議가 낭료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지않아 이로부터 冠과 신발이 전도되어 기강을 이루지 못하였다.[125]

---

(123) 이산보가 중립적 위치를 가졌던 것은 다음의 기사로 알 수 있다.
以李山甫爲吏曹正郎時 東西黨已成 爲銓郎者各執好惡 山甫重厚有力量 獨持和平之論 산보는 후기에는 서인으로 간주된다.

(124) 《선조수정실록》 권13, 선조 12년 5월

(125)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 1월

(126) 상동

이 지적은 낭관권형성 이후의 이판의 지위변화를 간결하게 지적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낭관권을 이이는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선조도 '卿實可合'이라고 찬동을 하였다. 이러한 이이의 움직임에 대해서 史臣은 "한가지 일도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낭관의 專柄이 더욱 심해지자 이이는 병으로 사퇴하고 말았다."(126)고 기록하고 있어 이이를 중심으로 진행된 낭관권에 대한 공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낭관권을 혁파하려는 노력은 선조 16년에 낭권의 핵심요소인 自薦制의 혁파로 실현된다. 혁파는 선조가 명한 것이었지만 다음의 史論에서 지적되는 것 처럼 이것은 李珥 등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동서의 분당이후 각자의 好惡로 출입하여서 吏郎이되는 자도 일대의 公望에 의한 극선은 아니었고 士路가 맑지 못했다. 선조가 이 폐습을 싫어하여 누차 억제하였는데, 이이가 일찌기 시사를 논하는 疏중에 館閣의 청선은 모두 낭관의 손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자 이이가 銓郎의 薦擧를 폐하려고 한다는 物議가 일어났다. 이로써 이이가 서인의 꺼림을 받는 것이 심해졌는데 이에 이르러 선조가 하교하여 특명으로 혁파하니 대개 三司 新進의 의론을 싫어하여 그러한 것이다.(127)

이것에 의하면 선조는 서인을 특히 이이를 공격하는 삼사의 언론을 싫어하였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낭관권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이이의 疏가 있자 이것을 따라 자천제를 혁파한 것이었다.

물론 자천제를 혁파하려는 의도는 이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음의 자료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銓曹의 薦擧는 尹元衡 李樑도 감히 못한 것이다. 黨與를 복적시키려고 舊規를 혁파한 것이다.(128)

이 자료는 선조 16년 영의정 朴淳을 공격하는 兩司의 啓중에 보이는 박순 죄목의 하나이다. 이것에 의하면 박순이 자천제를 혁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주장은 자천제의 혁파가 동인에 대한 서인의 공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인은 자천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자천제의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자천제와 이이 탄핵의 무관함을 강조하였다. 선조 16년 兩司의 啓에서 나타나는 '銓曹之薦尹元衡李樑之所不敢革'(129)나 도승지 朴謹元 啓의 '淸議多出於郎官'(130)라는 지적은 郎權이 가지는 淸議를 수용하는 기능성과 권신과 싸웠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의 입장이 이이 탄핵의 부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자 대사성 김우옹은 銓薦의 朗薦을 복립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이이를 공격하는 일이 어찌 銓郎이 자기무리를 끌어 들여서 생긴것이겠는가 士論이 격발하

(127)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128)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신축
(129)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신축
(130)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여 이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그 실을 찾지 않고 그 흠을 전랑에게 돌리는 것은 불가하다.(131)

여기서는 자천제와 이이 탄핵의 무관성을 강조하면서 자천제를 복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은 당시 자천제 혁파에 대한 선조의 직접적인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낭관들의 노력은 형식상은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지만 자천제는 복립되고 혁파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선조 16년 史論에 다음과 같이 自薦制 혁파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후에 薦法이 혁파되었다고는 하나 낭관 개인의 뜻으로 擬望하는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를 어기지 못함이 금석지전과 같이 굳어져서 비록 조정에 大變이 있어 吏郎이 전부 죄를 입어 쫓겨나도 후임의 銓長은 스스로 한 두 낭관을 임명하는 데에 그쳤다. 전장에 의해서 천거된 낭관도 감히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단지 일이인을 自代하고는 옮겼다.(132)

이 자료에 의하면 자천제는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자천제는 규정된 법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었고 관행적으로 형성되어서 權臣들의 압력 속에서 유지되어온 것이어서 단순히 혁파를 명하는 왕명에 의해서 혁파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서인의 자천제의 혁파의 움직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公論에 대한 공격이었다. 공론의 의미는 衆論 淸議 등과 같은 뜻으로 옳은 의견 다수의 의견 등으로 사용되었고(133) 또한 의견구성의 토대인 선비의 의견이라는 의미에서 士論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실제로는 언론 三司와 郎官이 이러한 士論을 수용하는 기관인 公論所在로 파악되고 있어 낭관들의 인사나 三司言事의 논리적 기반으로서 작용하였고, 결국 낭관권이 재상권과 대립관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내지 정통성의 근거였다. 그러므로 낭관권의 핵심인 자천제와 함께 공론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대한 서인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었다. 좁게 보면 자천제에 대한 공격은 郎官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공론의 공격은 그것을 직접 행사하는 三司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이는 선조 12년부터 공론의 문제성을 지적한다.

인심의 동의되는 바를 公論이라하고 공론이 있는 바를 일컬어 國是라고 한다. 국시는 일국의 사람들이 모의하지 않고도 같이 그렇다고 하는 바이다 (중략) 오늘의 소위 국시라는 것은 이것과 달라 主論者는 스스로 옳다고 하나 듣는 자는 혹은 따르고 혹은 따르지 않는다.(134)

이러한 이이의 견해는 당시에 동인이 세력을 얻어가면서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언론에 대한 비난이었지만, 아직 東西를 중재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던 시기여서 공론에 대해서 가혹

(131)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무술
(132)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6월
(133) 南智大 앞논문
(134) 《선조수정실록》 권13, 선조 12년 5월

하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이가 서인으로 몰린 선조 15년 이후의 발언은 신랄하다.

> 소위 浮議는 그 나온 곳을 모르며 처음에는 미미하나 점점 성해져서 마지막에 廟堂을 흔들고 臺閣을 움직이게 되면 온 조정이 움직여 대항할 수 없으니 浮議의 權은 태산보다 중하다. 날카로운 날에 한번 부딪히면 公卿은 그 존귀를 잃고 賢俊은 그 이름을 잃는다 (중략) 오호라 일찌기 政在臺閣이면 憂亂이라하였는데 政在浮議이면 어떻게 되겠는가.(135)

여기서 浮議는 편향성을 의식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公論을 지시한다. 즉 공론이 동인을 위한 부의가 되고 그에 따라 公論 所在로 인식되는 三司와 낭관도 동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이이의 공론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삼사에서 계속 탄핵을 하게되는데 홍문관에서는 箚를 올려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 공론에는 萬乘의 존귀에 있어도 굴복하여 따라야할 것인데 오히려 재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公論을 멸시하기를 기탄없이 함이 가한가. 그 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오늘날 이야기하는 자는 혹 李珥를 王安石에 비기니 李珥의 文章節行이 어찌 王安石에 비기겠는가 그러나 왕안석의 교만하여 命을 업수이여김과 言者를 배척함은 李珥도 가지고 있다.(136)

위의 이이에 대한 비난은 극단적인 것이었다. 성종대를 거치면서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부국강병적 요소를 가진 왕안석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왕안석을 그것도 왕안석의 단점만을 이이에게 비긴 것은 이이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인 것이었다. 이러한 맹렬한 공격은 역으로 이이의 공론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고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해준다.

공론을 표방하는 東人의 三司 언론에 대한 비판은 이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인의 공통적인 것이었다. 선조 16년 成渾 역시 疏를 올려 이이를 공격하는 三司를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 지금의 말하는 자는 스스로 公論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불공하고 불평함이 이와 같으니 장차 어떻게 인심을 굴복시킬 수 있겠는가.(137)

성혼 역시 공론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서인이 공론의 편파성 지적은 자천제가 다시 복립되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또한 공론을 내세우는 三司와 郎官들이 지향하는 公論政治로 향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낭관권의 보호하에서 이루어지는 三司 언론의 타당성으로 부여되는 공론이 지니는 한계성을 지적함으로

(135) 《선조수정실록》 권16, 선조 15년 9월
(136) 상동
(137)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7월

써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붕당정치로의 진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과제의 수행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이에 의해서 주도된 동인에 대한 공격은 선조 17년 이이의 죽음으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 그것은 낭관권의 핵심인 자천제를 혁파할 수도 없었으며 공론의 편파성을 지적할 뿐 공론을 표방하는 삼사의 언사도 견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었다. 이것은 낭관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론까지도 인정하면서, 오히려 서인도 공론의 입장에 서려하는 방향이었다. 즉 서인과 동인이 기본적으로 동질집단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먼저 외척으로 서인의 약점이 되고 있는 심의겸과의 연결을 자른다. 선조 18년 李貴의 다음 상소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이는)登科한 후 丁卯년에 銓郞으로 선발되었는데 의겸은 불만을 표했지만 金繼輝의 주장에 의해서 천거되었다.[138]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외척이라는 까닭에 동인 공격의 촛점이 되는 심의겸을 서인에서 잘라내기 위한 것으로 이이와 심의겸의 관계를 맺게되는 吏郞의 自薦에서부터 이 양자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심의겸과의 관계절단의 모색은 선조 14년에도 東西 중재를 위한 대안으로 이이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었으나 당시 동인 정인홍 등이 정철까지 심의겸당으로 몰아 붙이려하여 중재가 결렬된 바 있었다.[139] 이러한 선례를 따라서 李珥 사후 서인들에 의해서 취해진 조처였다.

이와 동시에 이이를 재평가하는 일이 행해진다. 다음의 선조 19년 趙憲의 상소중에 잘 나타난다.

이이는 平心을 지니고 있어 善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도 淸要의 자리에 두었다.(그렇지 않았다면) 柳成龍 金應男 李潑등이 어떻게 淸望에 들 수 있었겠는가.[140]

이이가 공평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여 동인의 핵심인물들이 淸要職에 들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이이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이와 연결속에 서있는 자신들 서인의 입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런 준비적인 움직임을 토대로 선조 20년에는 서인들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화한다. 다음의 선조 20년 趙光玹 李貴등에 의해서 올려진 상소의 일부에 잘 나타난다.

서인은 士類이며 동인 역시 士類이다 (중략) 東西의 설이 있은 이래로 서인이라고 지목한 설은

(138) 《선조수정실록》 권19, 선조 18년 9월
(139) 《선조수정실록》 권15, 선조 14년 7월
(140) 《선조수정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네 번 변하는데 그 초에는 沈義謙 까닭에 구신들을 서인이라고 불렀다. 三尹이 그들이다. 그 다음은 서인을 구하려는 무리들을 서인이라고 지목했으니 鄭澈과 같은 이들이 그러하다. 그 다음은 東도 西도 아니고 중립에 선자들을 서인이라고 불렀다. 李珥와 같은 유가 그것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士林으로 珥渾을 알고, 존경하는 자를 서인이라고 한다. 오늘날 조야의 公論之人이 그들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말이로구나. 이러한 까닭에 공론에 불복하여 서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 이것으로 보건대 이이가 공론을 위해 논해서 黨邪의 이름을 얻었고, 성혼은 이이를 구하려하다가 私護의 이름을 얻었으며 내외의 천백의 선비가 珥渾을 구하려다가 서인의 이름을 얻었다. 백대의 공론은 비록 속일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는 구부러지게 보이니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141)

李貴등은 '서인도 士類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서인이라고 지목되는 부류를 시간에 따라서 사단계에 걸쳐서 분류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신들을 珥渾을 존경하는 사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걸음 더나아가서 자신들을 公論之人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三司 언론의 불공정성을 지적면서 그러한 까닭에 내외의 千百의 선비가 삼사의 언론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서인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李貴등의 서인에 대한 해석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었다. 사실 이 시기에 이르면 서인의 구성원이 선조 10년경 尹睍을 통해서 낭권을 장악하려 하던 시기에 지적된 "前輩 중에서 年少新進은 불과 그 자제 수삼인에 불과하다"(142)는 상황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미 李珥와 成渾의 제자들이 많았으며 위의 상소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사의 언론의 편향성을 의식하는 사류가 다수 서인에 합세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인원구성이 변화를 가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서인이 스스로를 사류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公論之人으로 자처하여 공론과 연결을 모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즉 기본적으로 재상권을 토대로 하였던 서인이 낭권과 언권의 토태로 인식되어있는 공론과 연결을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자신들이 공론을 형성하는 사류라고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공론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정치가 정립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었다. 또한 언권과 낭권이 추구해왔던 정치적 의미와 의의가 공론정치의 추구에 있었다고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낭권의 승리로 파악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서인의 모색은 동인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조 21년의 史論은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당시 조정에 이미 南北의 설이 있었는데 서인을 배척하자는 자들을 北이라 하였고 피차를 참용하자는 이들을 南이라 하였다.(143)

남북의 분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논해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에 의하면 서인의 노력은 동인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

(141) 《선조수정실록》 권21, 선조 20년 3월
(142)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10월
(143) 《선조수정실록》 권22, 선조 21년 8월

악되는 것이다.

서인은 이러한 공론과의 연결을 가지면서 붕당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언권과 낭권의 확보에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자료로 다음의 사례를 들수 있다.

> 당시의 名士는 모두 時論의 緩猛으로 品第를 정하여서 異論者는 죄를 얻었고 自守者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李恒福 李德馨 등은 文華의 인재로 자주 宣祖의 관심을 받으니 사람들이 감히 논하지 못했고 吳億齡 柳根등도 모두 文名으로 顯要에 올랐으며, 洪麟祥 역시 經學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인은 이름이 있었으나 구차이 黨比하여 干進하지 않으니 공론이 칭찬하였다.(144)

이덕형 이항복 오억령 유근 홍인상 등 낭권의 핵심인물들에 대한(145) 인물평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붕당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이들이 吏郎으로 있으면서는 인사에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반영한 것이 이들의 당파가 불분명하거나 남인으로 간주되었는데 후기에 서인으로 간주되는 이항복이 끼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볼 때 서인의 구성원이 변화하고 이들이 공론과의 연결을 모색하면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가진 남인들에 의해서 호응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후 동과 서는 공론을 그 존립 근거로 삼으면서 낭관권의 긍정적인 운영속에서 자파의 정착을 위해서 애썼고 그것은 붕당정치로 귀결된다.(146)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낭권의 발전이 붕당정치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붕당정치는 낭권의 형성이후 변화된 정치구조가 갖는 내재적인 성격의 귀결이었으며 낭권이 추구해온 공론정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운영 방안이었다.

結 言

이상으로 새로운 정치운영방식으로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세한 사례를 검토해가는 것이어서 지루하고 비약이 많았지만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성종대 강화된 言權과 중종대에 형성된 郎權은 정치구조를 변화시켰고, 그것은 당연히 운영방식에서도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왕과 재상이 결탁하여 새로운 변화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귀

(144)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1년 12월

(145) 이덕형과 이항복은 上同條에 유근은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1년 11월조에 吏郎으로 나타난다.

(146) 이후의 변화는 다른 지면에서 상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후 변화도 기본적으로 낭권의 구조적 분열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크게 참고가 된다.

具德會 앞 논문

韓明基 1988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 20 서울大 國史學科

吳洙彰 1985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 13 서울大 國史學科

결되어 그 결탁의 매개체로서 權臣이 등장하였다. 중종말기의 金安老, 명종대의 尹元衡 李樑은 모두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權臣들이었으며 이들은 낭권과 언권을 탄압 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은 재상의 관여를 허용하는 弘文錄의 한계를 이용하여 홍문관을 장악하였고, 홍문관이 갖는 臺諫 彈劾權을 이용하여 대간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郎權을 견제 탄압하였다. 이러한 동향에서 권신들은 모두 동일하였지만 김안로는 아직 낭관권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였고, 윤원형은 낭권에 자파를 심어 낭관권의 분열을 일으켰음에 비하여 이양은 명종의 주도가 강하여 권신으로서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등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낭관권은 상당한 정도 분열 침해를 당하였으나 끝까지 권신에 저항하여 정치구조의 정상화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선조대에 들어서는 낭관권이 재기능을 찾게 되었다. 선조 초기에 재정립된 낭관권은 재상과 대립하면서 老少黨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되지만 아직 붕당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재상과 낭관의 대립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선조 8년이후에는 상황이 상당히 변화한다. 낭관권의 선배집단이 서서히 재상직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임낭관들과는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가지기 시작해서 분열은 시간문제였고 분열의 계기만 요구되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은 구조적인 갈등을 표출시켜 양 집단의 대립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아직 선배집단이 재상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어서 상호협조적인 측면도 보여주면서 서서히 상호 갈등 대립하는 측면이 노정되었고, 선조 15년까지는 소위 동인의 형성이 확고해지고 중도에 위치했던 이이등을 서인으로 몰면서 양자는 분명하게 정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인은 재상권을 토대로하여 자천제의 혁파, 공론의 부당성 제기 등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낭권을 해체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李珥 서거후에는 오히려 동인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인은 자신의 구성원을 사류로 규정하고 공론과 연결지으면서 동인과 기본적으로 동질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서인의 모색은 설득력이 있었고 이것을 수용하는 동인에서는 인사에 공정성으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서인의 모색은 언권과 낭권이 추구하였던 공론정치를 수용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로써 붕당정치가 가능한 토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로는 공론에 입각해서 형성된 붕당 정국을 어떻게 정립시키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여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붕당운영방안이 모색된다.